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FDI, 수출과 고용간의 관계 연구 :
베트남 경제의 경우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FDI, Export and Employment :
In Case of Vietnam Economy

指導教授 俞 日 善

2006年 8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 易 學 科

Tran Thi Thanh Dao

이 論文을 Tran Thi Thanh Dao 의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 員 長	羅 昊 洙	印
委 員	金 鍾 碩	印
委 員	俞 日 善	印

2006 年 8 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 易 學 科

Tran Thi Thanh Dao

목 차

ABSTRACT.....	4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 방법.....	8
제3절 연구 구성.....	8
제2장 베트남 경제 현황.....	9
제1절 도이머이 정책.....	9
1. 도이머 정책 배경.....	9
2. 도이머이 주요한 내용.....	10
제2절 베트남 경제 현황.....	11
1. 경제 동향.....	11
2. 무역 동향.....	13
3. 외국인 직접 투자 (FDI) 동향.....	17
제3장 수출, 해외 직접 투자, 고용의 관계.....	23
제1절 경제적 이론	23
1. Vent For Surplus 모델.....	23
2. Lewis 모델	27
제2절 베트남에서 이론적 함의.....	31
제4장 실증연구.....	35
제1절 추정 모형.....	35
제2절 실증분석 결과과 해석.....	39
제5장 결론.....	44
<참고 문헌>.....	46

<그림목차>

<그림 2.1> GDP 성장률 (1987-2004)	12
<그림 2.2> 베트남 수출-수입 현황 (1987-2004).....	13
<그림 2.3> 국가별 수출현황.....	15
<그림 2.4> 국가별 수입현황.....	16
<그림 2.5> 외국인 직접 투자.....	18
<그림 3.1> 잉여 노동의 수출품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로부터 얻는 이득	25
<그림 3.2> 노동의 한계 생산물, 농업 부문.....	27
<그림 3.3> 노동의 한계 생산물, 산업 부문.....	29
<그림 3.4> 고용현황: 도시-농촌, 유급 노동, 자영 노동, 가정 노동, 1996년.....	33
<그림 5.1> 베트남 주요수출품	42

<표목차>

<표1.1> 베트남 경제성장, 고용, 수출, FDI.....	7
<표2.1> 국가별 투자.....	20
<표2.2> 부문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21
<표3.1> 인구, 고용, 실업, 불완전 고용, 1996.....	31
<표4.1> FDI의 경제성장과 수출과의 상관관계.....	39
<표4.2> 임금, 노동생산성, 수출 등 노동고용에 미친 영향.....	40

<ABSTRACT>

At the End of War against France on 8/1945,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was established under leading of Vietnam Communist Party. From 1954 Vietnam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the North of Vietnam has become independent and been operated under socialistic system while the South of VietNam has been done under capitalistic system.

Afte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of Vietnam in 1975, the economy has faced a lot of difficulties . First, The Vietnam War destroyed most of the existing industries and made the government spend most of its budget on military facilities. Secondly, the government had pursued the autarky-oriented policy under the regime of socialism. Such circumstances had driven the economy of VietNam to fall into economy crisis in 1980's.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se deadlock, Vietnam government introduced a new policy 'Doi Moi' which aims at opening door outward.

As a result of 'Doi Moi', annual growth rate has risen from 1% to 7-8%. Moreover, Vietnam expor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lso have increased rapidly. The core of industry structure has changed gradually from agriculture industry to manufacturing industry. Especially, unemployment rate has decreased and employment rate has increase fast. In that case, I wonder whether the growth of FDI and export have been related to the growth of employment rate. So my thesis focus is on finding how FDI, export and employment are internally related with each other. Based on 'Vent For Surplus', 'Lewis' model the economic implication will be derived. By taking

advantage of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the estimated equation is generated and by applying regression analysis to the equation, the parameters of the economy are estimated.

The findings are that the increas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Vietnam economic growth and export. While the increase in export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labor productivity, it has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Conclusively the Lewis model is more useful than the theory of Vent For Surplus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among FDI, export and employment in Vietnamese economy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75년 남북 베트남이 통일한 이후 베트남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기간 전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로 인한 경제구조의 파괴, 또한 폐쇄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실패로 80년 중반 베트남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대내적으로 시장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을 지향하는 ‘도이머이’ 정책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경제개혁개방정책은 베트남 경제에 극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 베트남 정부는 부족한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 해외직접 자본을 적극 유치했으며 그것은 풍부한 노동과 결합하여 가공무역형태의 산업을 육성, 발전하였다. 이 결과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가 채 안 된 베트남 경제는 ‘도이머이’정책이후 연평균 7~8%의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하였다. <표1.1> 또한 수출과 고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산업구조도 1차산업 중심에서 2차산업 중심으로 이동했다. 그렇다면 FDI와 베트남 수출, 고용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FDI는 베트남의 수출, 고용과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베트남 경제 특히 베트남 고용, 수출과 FDI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표1.1>

베트남 경제성장, 고용, 수출, FDI

연도	경제성장(%)	고용(백만명)	수출(백만 달러)	FDI (백만 달러)
1987	3.63	28.5	854.2	5
1988	6.01	28.5	1038.4	8
1989	4.68	28.9	1946.0	4
1990	5.09	29.4	2404.0	180
1991	5.81	30.1	2087.0	375
1992	8.70	30.9	2580.7	474
1993	8.08	31.6	2985.0	926
1994	8.83	32.3	4053.5	1945
1995	9.54	33.0	5448.9	1780
1996	9.34	33.8	7255.8	1803
1997	8.15	34.5	9185.1	2587
1998	5.76	35.2	9360.2	1700
1999	4.77	36.0	11541.3	1484
2000	6.79	37.6	14482.6	1289
2001	6.89	38.4	15029.2	1300
2002	7.08	39.5	16706.2	1200
2003	7.34	40.5	20149.0	1450
2004	7.69	41.6	26504.0	1610

자료: Asia Development Bank (ADB), <http://www.adb.org/statistics>

제 2 절 연구 방법

본 논문은 A. Smith의 '잉여분출설 (Vent For Surplus)'¹과 'Lewis모형'²을 바탕으로 하고 베트남에 투자한 자본, 수출, GDP, 고용, 임금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FDI, 수출, 경제성장이 고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실증분석하려고 한다. 통계 방법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추정모형을 만들고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경제적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이러한 모든 자료는 베트남 통계국과 ASIAN 개발 은행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제 3 절 연구 구성

본 논문은 5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본 논문의 목적, 연구, 구성을 소개한다

제2장은 '도이머이' 정책 후부터 베트남 경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하는 원인과 '도이머이' 정책의 주요 내용을 통해서, 이 정책으로 인한 결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제3장은 '잉여분출설' 모델 및 'Lewis' 모델을 통해서 수출, 고용과 해외 직접 투자 (FDI)의 관계를 연구하며, 동시 베트남의 고용, 수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4장은 아시안 개발 은행과 베트남 통계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Cobb-Douglas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다. 그리고 경제 파라미터의 추정치를 가지고 경제적 함의를 도출한다

제5장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¹ Myint, Hla (2, 1958) 참조

² Fu, Xiaolan (2004)

제 2 장 베트남 경제 현황

제 1 절 ‘도이머이’ 정책

1. ‘도이머이’ 정책 배경

1945년 8월 프랑스 전쟁 종전 이후 1945년 9월 2일 베트남 공산당의 지휘 아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은 9년 동안 다시 식민지 부활을 꿈꾸는 프랑스와 투쟁하였다. 이 결과로 1954년 5월 7일 베트남은 독립하였지만 남북으로 양분되었다. 북부지방은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정부가, 남부지방은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정부가 설립되었다. 북부지방은 교통운송 및 농업부터 경제 회복 개발을 시작했다. 1958년부터 분배 경제 유형 형성, 생산자원 공유화 등 경제 정책을 실행했다. 1961년부터 정부는 공공시설, 교육,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은 식민지체제와 오랜내전으로 피폐해진 베트남 경제의 회복을 가져왔는데 특히 농업분야의 회복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1964년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남북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였다. 10여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은 전산업을 파괴하였다³

1975년 베트남이 남북 통일된 이후,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식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그 경제적 성과는 미미하였다. 생산은 정체되고, 경제 성장은 0.4%/년에 머물렀으나 인구 증가율은 2.3%가 넘었다. 또한 농업경제도 피폐하여 1980년에는 매년 15억7,60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해야 했다. 매년 물가는 20%씩 상승하였으며 생활필수품의 부족으로 수입이 확대되어 수출률 4-5배 초과하였다. 사회주의 이념을 앞세운 여러 프로젝트는 자본부족으로 완성되지 못했으며, 경제운용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은 베트남 국내 경제는 심각한 침체위기에 빠뜨렸다.

³ Vietnam Trade Information , <http://www.info.vn/>

80년대 초 베트남의 인플레이션(inflation)은 30-50%, 1985년 말에는 587.2%로, 특히 1986년에 최고의 인플레는 774.7%에 도달하는 등 개발도상국이 보여준 전형적인 하이퍼인플레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를 계기로 1986년 12월에 베트남 정부는 개혁 개방을 표방하는 ‘도이머이’ 정책을 실행했다. 이어서 ‘도이머이’를 계속적으로 개선하며 세계의 동향에 맞는 대외 정책들을 도입하여 경제 개발 측면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도이머이’는 베트남 경제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2. “도이머이” 주요한 내용

1986년에 실시된 ‘도이머이’정책의 주용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부 주도의 경제 관리 구조를 배제하고 지방 자치를 허용한다.
- 1 인플레를 억제하고자 베트남 경제 정책을 시장 지향성 경제 체제로 바꾼다.
- 1 세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무역을 촉진하는 대외 경제 정책을 실행한다.
- 1 장기간에 걸쳐 토지 사용권을 허용하는 농업 정책을 실시하여, 생산품, 생산요소 구매를 자유롭게 한다.
- 1 사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삼는다.
- 1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입을 허용하고 외국기업들의 국내시장에서 활동을 보장한다.⁴

⁴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 (MOFA), <http://www.mofa.gov.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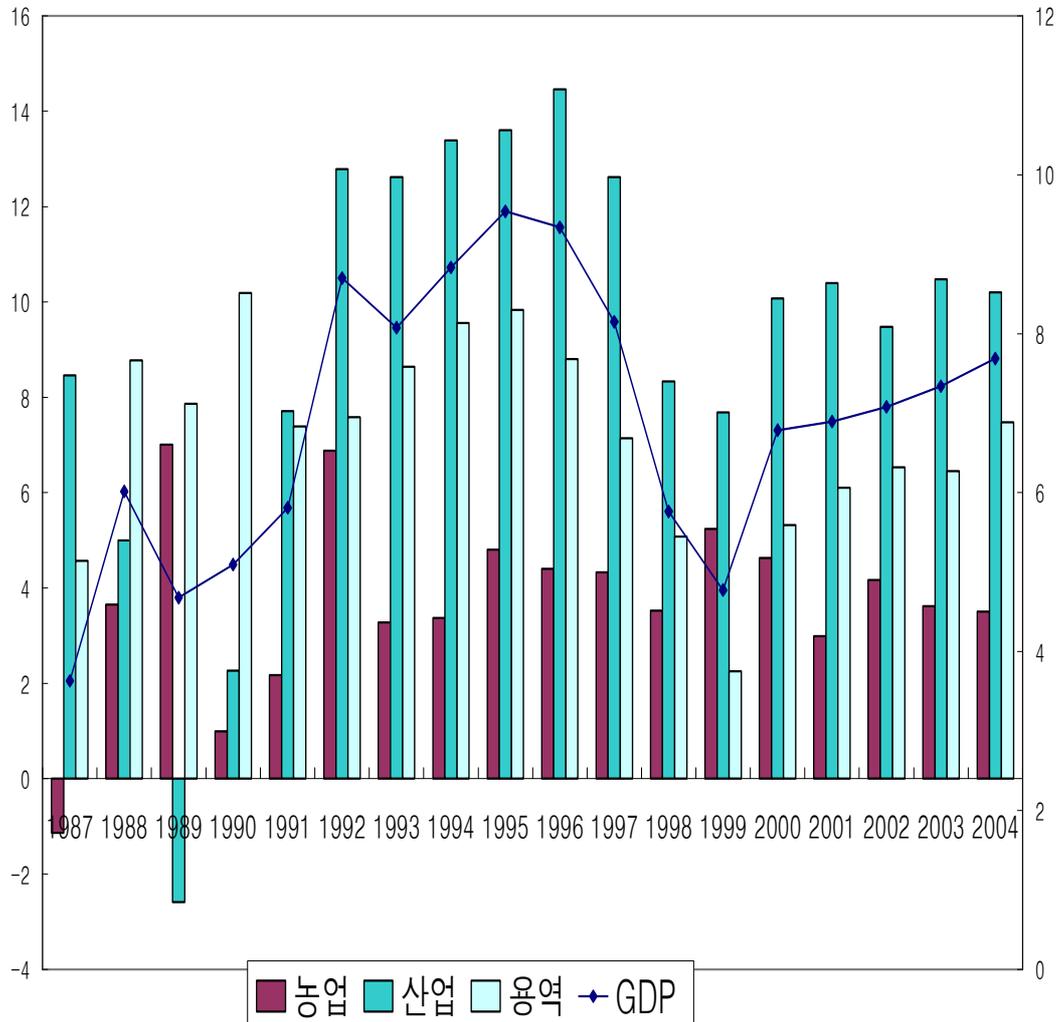
제 2 절 베트남 경제 현황

1. 베트남 경제 동향

1987년부터 1990년기간은 ‘도이머이’ 정책의 첫 단계이며, 정부의 관리 체계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기간에 농업 정책, 재정 정책, 경제 관리를 개선하고자 공산당과 정부의 결의문 및 법률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 시기 초반에 구 체계가 아직 남아있어 신체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이머이’ 정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도이머이’ 정책의 성과는 8-9%의 높은 GDP 성장률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의 금융경제위기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베트남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1999년에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4.77%로 감소했다 <표1.1>. 이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좀더 개혁개방정책을 확대하였다. 즉 법률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2000년7월 미국과 쌍무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미국과 무역을 촉진하였다. 또한 농업부문의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여 국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였다. 2000년부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후속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어 외국인 직접투자 (FDI)와 수출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경제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림 2.1 > GDP 성장률 (1987-2004)



자료: 아시아 개발 은행 (ADB), [http:// www.adb.org/statistic](http://www.adb.org/statistic)

<그림 2.1>에서 보듯이 ‘도이머이’ 정책 실시 이후 농업부문의 성장률이 4%정도로 동기간 GDP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에 비해 제조업부문의 성장률은 10%정도로 동기간 GDP 성장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베트남 경제는 개형개방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경제체제가 농업중심에서 서서히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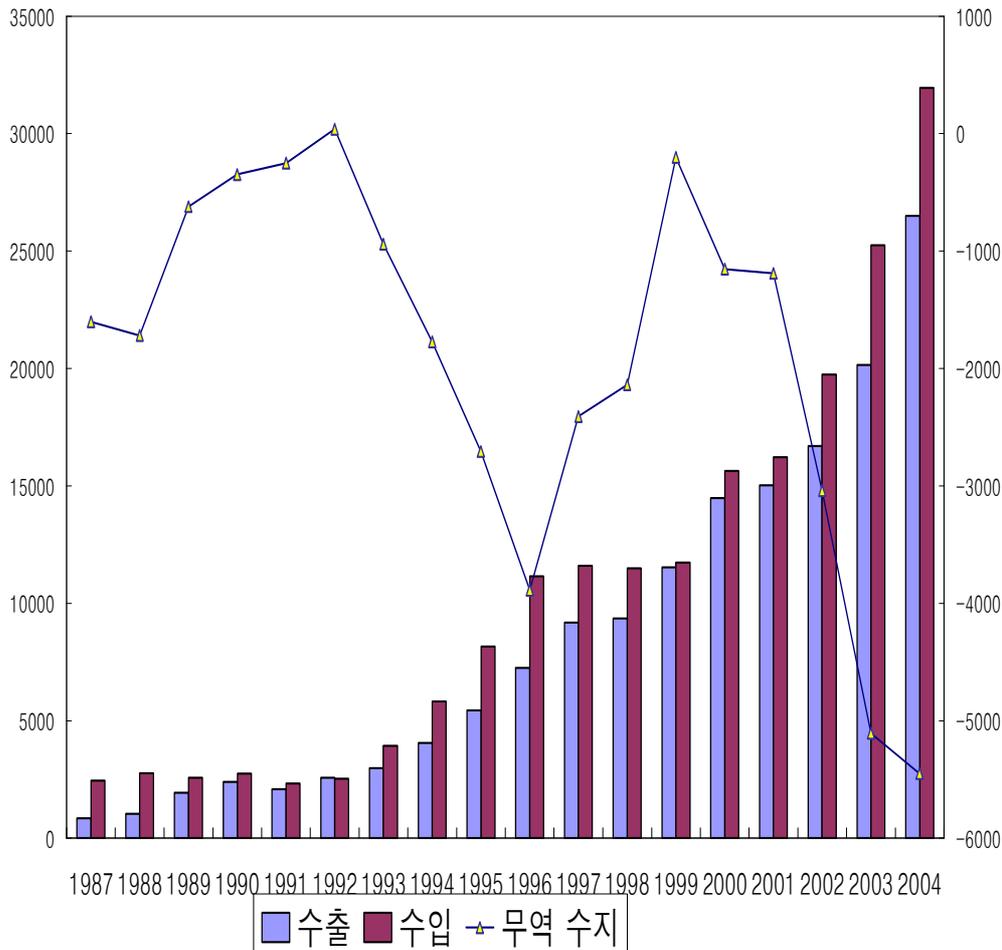
2. 베트남 무역 동향

가. 수출 현황

<그림 2.2>

베트남 수출-수입 현황 (1987-2004)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아시아 개발 은행 (ADB), <http://www.adb.org/statistic>

<그림 2.2>에 보듯이 ‘도이머이’ 정책이후 초반 6년정도는 수출과 수입에 큰 변동 없이 수입은 30억불 수준, 수출은 25억불 수준을 유지하였다. 93년부터 수출의 증가가 급속화되면서 2004년 현재 265억불 수준으로 10배를 상회하여 매년 10% 이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있다. 2001년에 베트남 수출액은 150.29억불에 달했

으며 증가율이 4%이었다. 그렇지만 2001년의 수출 증가율은 2000년의 1/6뿐이었다. 2001년의 수출 증가율은 감소하는 주요 원인은 한편은 세계 경제 사정이고, 다른 한편은 석유, 쌀, 커피 등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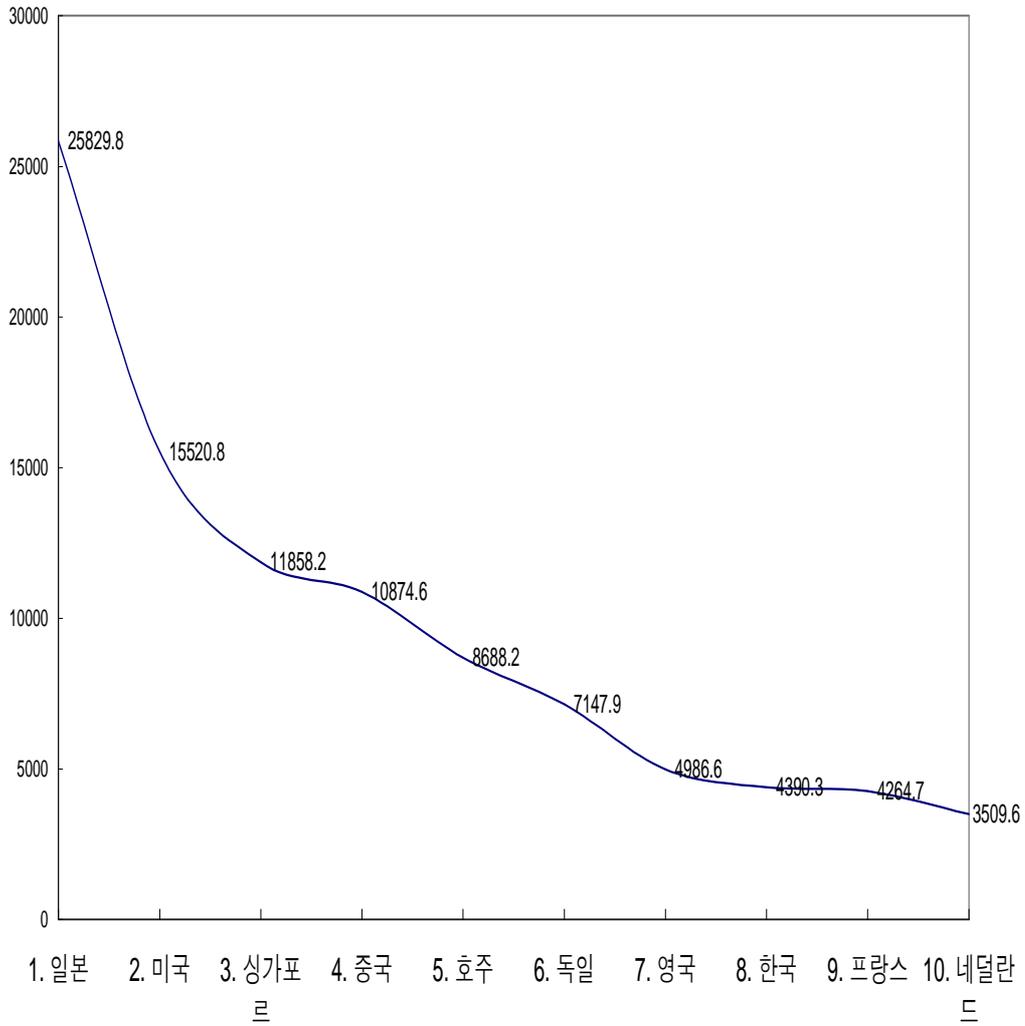
2002년에 수출액은 167억불에 달했으며 증가율은 11%이었다. 베트남 주요 수출품들이 더 이상 줄지 않았지만 전자, 부품, 전기, 의류업 등의 원자재 수출이 감소했다. 2003년에 수출액은 201.49억불에 달했으며 증가율은 21%이었다. 수출 증가율이 높은 물품들은 고무, 전자품, 컴퓨터, 커피, 케이블 등이었다. 쌀, 차 등 수출품 가격은 하락했으나 주요 수출품들의 평균 가격은 증가했기 때문에 수출액이 늘었다. 최근에 외주계회사들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베트남 수출의 50%나 점유했다. 2004년에 수출액은 265억 불에 달했으며, 증가율은 32%이었다. 지금까지 수출액은 가장 높은 시기이며, 증가율은 최근 4년동안에 가장 높았다.

<그림2.3>에서 보듯이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2004년말 수출액 누계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은 일본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258.298억불어치를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출품은 해산물 의류, 석유, 섬유 등이었다. 그 다음은 미국이다. 1992년부터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기는 했지만 시장 점유율이 매우 적었으며, 10만불 정도뿐이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미국에 수출은 급속히 증가했다. 2004년까지 총 수출액은 일본에 비해서 조금 적었지만 (155.208억 달러). 일본, 미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118.582억 달러의 총 수출액으로 제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 중국, 호주 독일 영국에 이어 한국은 베트남 수출 대상국의 8번째 국가에 해상된다

<그림 2.3>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아시아 개발 은행 (ADB), <http://www.adb.org/statistic>

나.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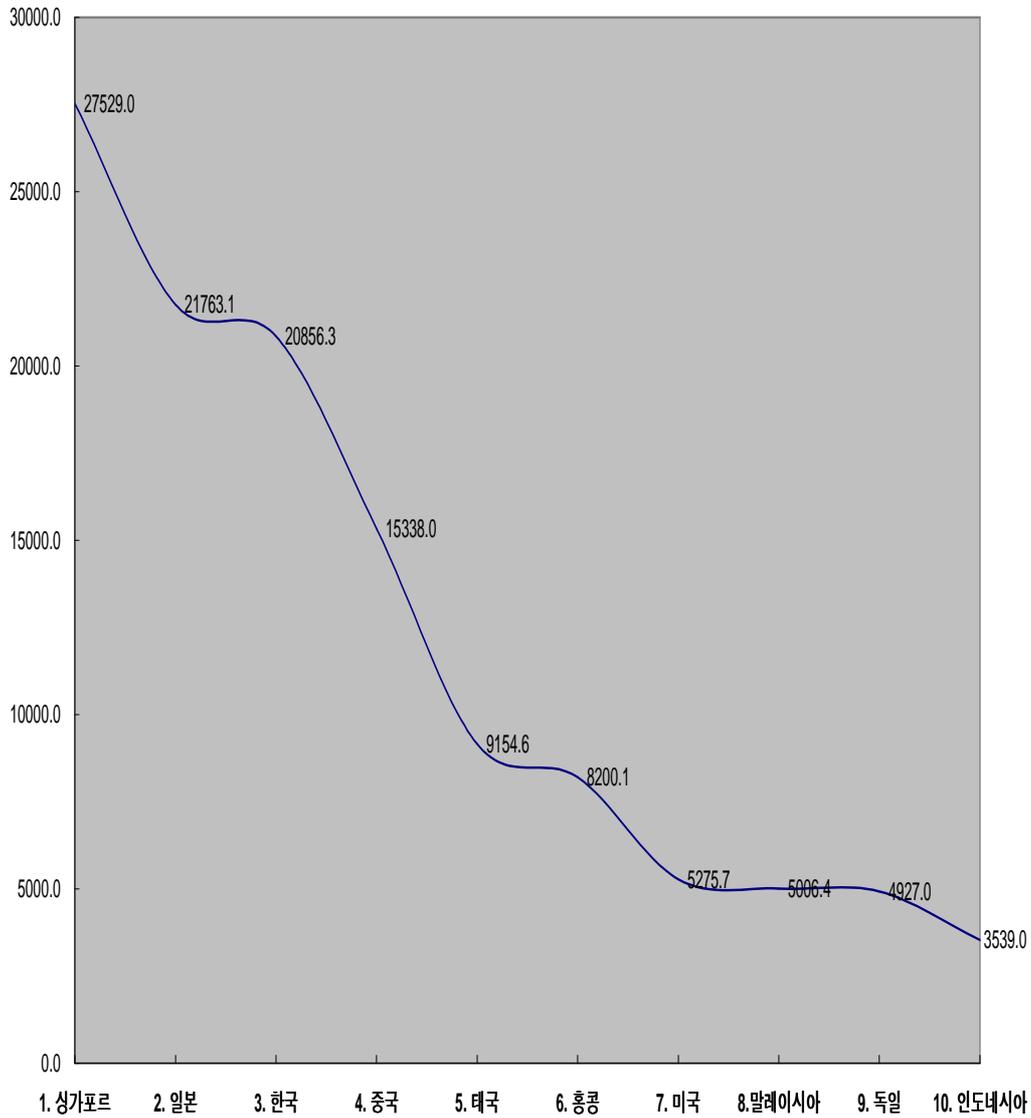
<그림2.2>에서 보듯이 ‘도이머이’ 정책이후 초반에는 수입이 30억불 수준이었으나 매년 빠른 증가율을 보여 2004년 현재 320억불 수준에 도달하였다. 매년 10%를

상회하는 빠른 증가율을 알 수 있다

<그림 2.4>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아시아 개발 은행 (ADB), <http://www.adb.org/statistics>

2001년 이후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 수입액은 160.22억 달러에 달했으며, 증가율은 4% 증가했다. 그렇지만 이 수입 증가율은 2000년에 증가율의 1/8뿐이었으

며 (33%) 주요 원인은 석유제품의 값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때 경상수지적자는 11.88억불이었다. 2002년에 수입액은 197억 불에 달했으며, 증가율은 22%이었다. 개인 회사들의 투자 증가로 인해 건설장비, 기계장비, 기계 등 수입품들이 급속히 늘었으나, 수입이 30.39억 달러로 수출을 초과했다. 2003년에 수입액은 252.56 억불에 달했으며, 증가율은 28%이었다. 이 증가율은 최근4년동안에 가장 높았다.

국내소비자 소득증가에 따른 최종재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와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등이 많이 수입됐기 때문이며 경상수지적자가 51.07억불로 확대되었다. 베트남 회사들의 주요수입품목은 석유 및 비료등이며, 2003년은 63.3억불 어치를 수입하였다. 이에 비해 외국계회사들은 11.6억불을 수출했다. 2004년에 수입액은 319.51억불에 달했으며, 증가율은 27%이었다. 경상 수지적자는 54.5억불에 달했으며, 경상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림2.4>에서 보듯이 국가별 수입 현황을 보면 2004년말 수입액 누계기준으로 보면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275.29 억불을 수입하였다. 그 다음 일본으로 수입누계액은 누계 수입액은 제2위로 217억불에 달하였다. 주요 수입품들은 기계장비, 기계 부품, 철강, 컴퓨터, 컴퓨터 부품 등이었다.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208.563억불의 수입 누계액이 제3위를 기록하고 있다

3.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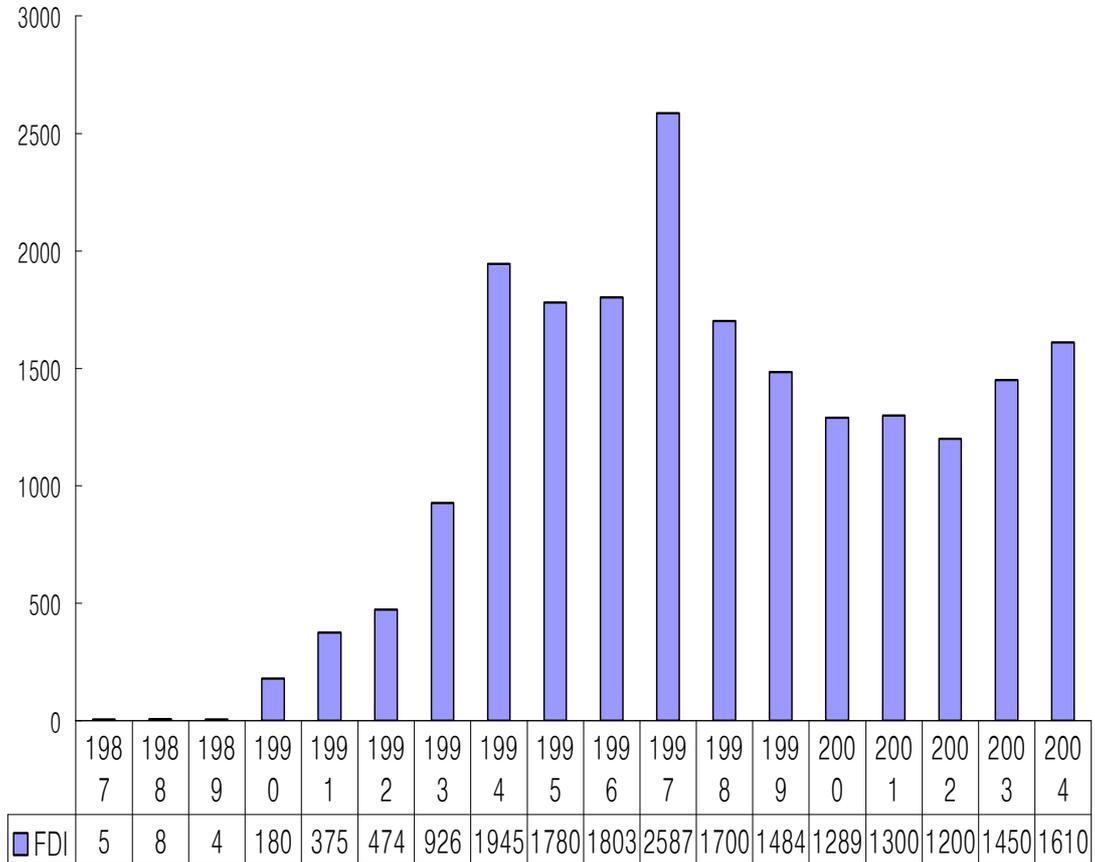
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추이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가 파악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최근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3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5>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http://www.stats.unctad.org/fdi>

1998년 이후에는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가 급감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부문에의 투자 감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외국인 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베트남은 2001년의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신회사법 채택, 외국인 투자 관련법 개정,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2월초 총서기장이 일련의 경제적 위기에 공산당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공산당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가별 투자 현황

<표2.1>에서 보듯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현황을 보면 2004년말 승인액 누계 기준으로 보면 총 5,110건에 458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유입액은 27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 투자 현황을 보면 싱가포르가 제1위로 334건에 투자 승인 규모가 80억불에 이르고 실제 유입액도 34억불에 이르고 있다. 이후 대만, 일본에 이어 한국이 840건에 29억불의 투자 유입으로 제4위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 상위 10개국중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화교계 자본이 전체 투자의 32%나 점유하고 있어 이들의 베트남내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 홍콩 등의 경우에는 투자 건당 평균 투자 승인액 규모가 비교적 큰데 이는 주로 호텔, 리조트 등 부동산 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표2.1>

국가별 투자

단위: 백만 달러

국가	건수	승인액	유입액
1. 싱가포르	334	7982.94	3381.14
2. 대만	1259	7258.37	3145.84
3. 일본	490	5386.89	4253.31
4. 한국	840	4751.74	2888.83
5. 홍콩	326	3228.23	1941.83
6. B.V.Islands	212	2430.42	1141.28
7. 프랑스	142	2153.11	1060.72
8. 네덜란드	53	1835.26	1974.73
9. 태국	116	1384.85	756.77
10. 말레이시아	163	1319	811.44
11. 미국	215	1281.28	729.93
12. 영국	62	1217.53	600.24
기타	898	5536.64	4898.11
합계	5110	45766.26	27584.17

주: 2004년 12월말, 누계기준임

자료: <http://stats.unctad.org/fdi>

다. 부문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표 2.3>에서 보듯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투자 부문별로 보면 유입액 기준으로 제조업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의 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

부문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부문	건수	승인액		유입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제조업	3,360	26,634.82	58	18,461	69
석유 및 가스	27	1,898.08	4.1	4,434.73	16.6
경공업	1,403	7,131.58	15.6	3,362.26	12.6
중공업	1,407	10,884.94	23.8	6,587.91	24.6
식품산업	230	2,838.54	6.2	2,038.02	7.6
건설	293	3,881.68	8.5	2,038.00	7.6
2. 농림어업	696	3416.95	7.4	1698.18	6.4
농업 및 임업	591	3,130.42	6.8	1,548.61	5.8
어업	105	286.53	0.6	149.57	0.6
3. 서비스업	1054	15714.46	34.4	6613.63	24.6
운송, 통신	143	2,567.84	5.6	918.46	3.4
호텔 및 관광	166	3,604.99	7.9	2,198.83	8.2
은행 및 금융	56	738.55	1.6	632.43	2.4
문화, 교육	179	665.89	1.5	342.04	1.3
신도시 개발	3	2,466.67	5.4	51.29	0.2
사무실 건물 및 아파트	104	3,635.64	7.9	1,611.94	6
공업 단지 건설	20	986.10	2.2	521.37	1.9
기타	383	1,048.78	2.3	337.27	1.2
총계	5,110	45,766.23	100.00	26,772.73	100.00

주: 2004년 12월말, 누계기준임,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5): 21-27

이 중 중공업은 건수 및 금액면에서 보면 각각 24%와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 집약적 부문으로의 투자가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 유입액은 6.4%로 매우 낮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24.6%에 이르나 서비스업 투자의 대부분이 호텔의 건설 및 운영 등 관광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투자 허가를 얻은 후 실제 투자한 비율이 58%에 불과한 것도 유의할 부분이다. 이것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투자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현지 법인 설립, 공장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베트남의 관료주의로 인한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 불명확한 법률체계,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하거나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 3 장 수출, 해외직접투자과 고용간의 관계

제3장에는 베트남에서 FDI와 수출 및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어서 수출이 고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베트남 같은 농업국가에서 고용, 수출 성장의 연관관계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국제무역이 시장확대를 가져와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은 자원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잉여분출설 ‘Vent For Surplus’이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 부문에 자본이 축적되면 농업 부문의 잉여 노동이 제조업부문으로 이동하여 생산량 증가를 가져온다는 ‘Lewis 모델’이다. 이 장에서는 이 두 모델을 설명하고 실증분석의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는 경제적 함의를 도출한다.

제 1 절 경제적 이론

1. 잉여분출설

정태적 무역 이익외에 무역이 잉여 자원을 이용하는 역할을 한다고 Adam Smith는 주장하였다⁵. 무역을 하게 되면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에 노출되어 국내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수요 확대는 수출증가를 발생한다. 그러면 기존 생산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여분의 토지나 노동 등 잉여 생산요소가 사용된다

⁵ Smith의 동태적무역이익의 또 다른 측면은 무역이 시장확대를 가져오면 분업이 촉진된다. 이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이것은 무역이 공급측면에 작용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경우도 고용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Myint (1958)⁶는 이러한 Smith의 논리를 잉여분출설로 정립하였다. 잉여분출설은 무역이 없을 때 생산에 투입되지 않는 여분의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국제무역이 시작되면 시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출입 규모가 확대된다. 이때 수출증가를 위해서 잉여 자원을 생산활동에 생산요소로서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에대나 분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국제무역은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서 국내 수요 이상의 여분의 생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이과정에서 잉여자원이 분출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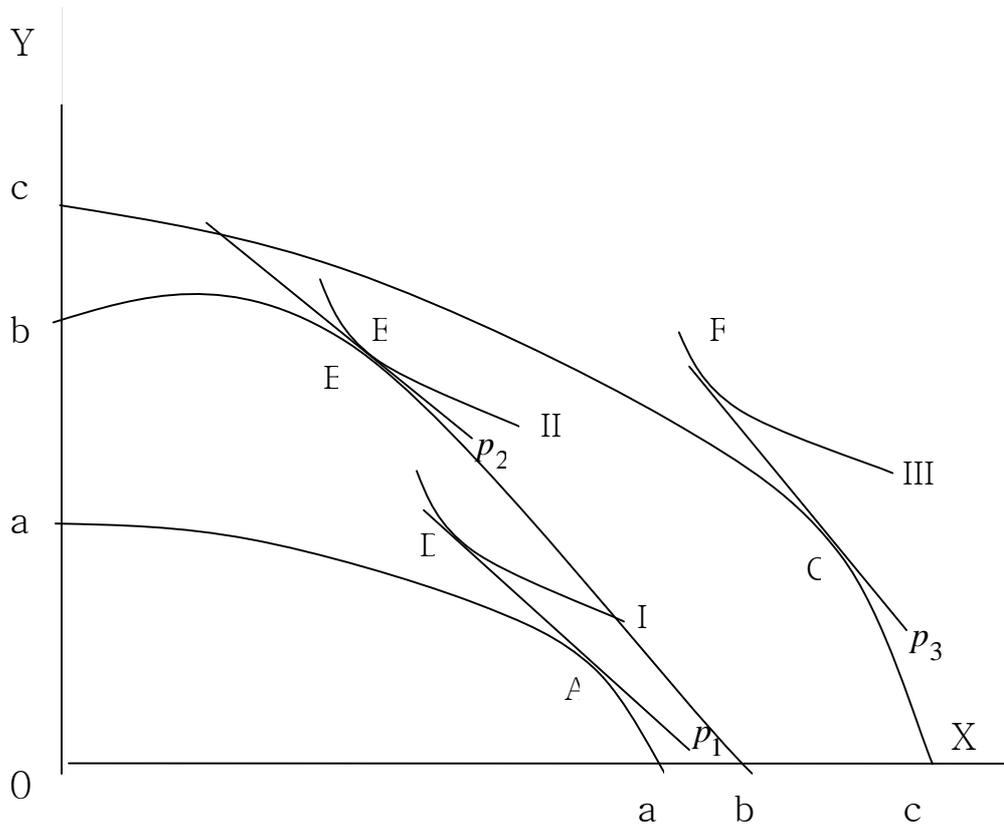
개발도상국에서는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잉여 자원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개도국 무역을 하게 되면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려야 하고 수출확대는 잉여자원, 특히 고용증가를 가져와 생산능력이 확대된다. 즉, 잉여분출설에 의한 경제성장은 공급 측면 아니라 수요 측면에 입각한다.

Myint (1958)의 잉여분출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잉여분출설'은 '비교우위'이론인 전통적인 'Heckscher-Ohlin-Samuelson(H_O_S)'모델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비교우위이론에는 잉여자원이 존재비교하여 하지 않는 완전고용을 가정한다. 왜냐하면 가격기구가 공급과 수요가 균형에 도달하도록 조정하기 때문이다. 토지가 노동을 초과하면 노동한계생산물이 증가하여 고용이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하고, 토지집약 생산물은 노동집약 생산물에 비해서 싸게 됨으로써 잉여 노동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가격기구가 잘 작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서 가격기구는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둘째

⁶ Myint, Hla (August, 1958), "Adam Smith's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Perspective of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Journal*, 44: 231-248

⁷ Myint는 Smith이론이 정태적 무역이익은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은 비판하고 당시 주목하지 않았던 무역이 잉여자원의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것이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동태적 무역이익을 강조하였다

는 국내 시장구조의 왜곡으로 투정자원에 대한 국내 유효 수요가 부족하여 잉여자
원으로 존재한다



<그림 3.1> 잉여 노동의 수출품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로부터 얻는 이익

셋째, 잉여분출설은 잉여 자원에 외자 유입의 역할을 인정한다. 이런 외자는 가
용 자원의 생산력 확대에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교통, 정보, 통신, 마케팅 부문을
발달시키고 비가용 자원을 이용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넷째, 경제에서 잉여 자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위에 본 바와 같이 최종재의 과잉 공급이 아니라 최종재의 유효수
요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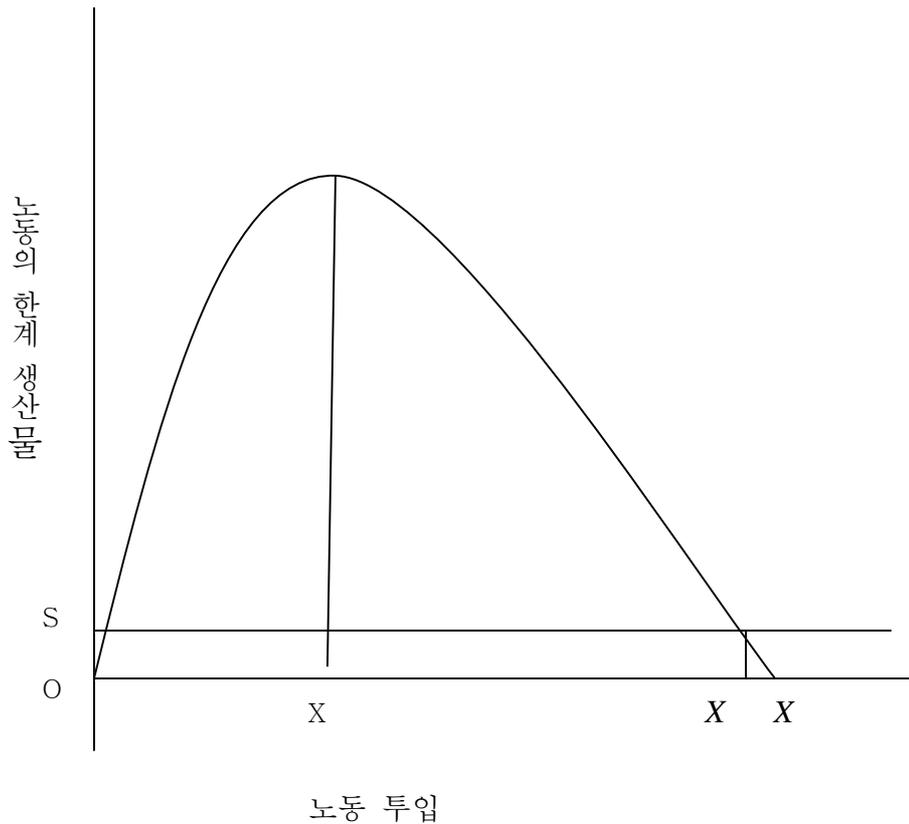
과생수요인 생산요소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잉여 자원이 존재한다

<그림3.1>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는 개방경제하에서 잉여자원이 어떻게 분

출하는가를 보여준다. 먼저 2개의 생산요소- 자본(K), 노동(L)과 2개 최종재 X재와 Y재가 있다고 하자. 이때 X는 노동집약재이고 Y재는 자본집약재이다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를 전제하면 생산가능곡선은 aa처럼 원점에서 오목한 형태를 취한다. 이때 국제시장에서 Y재로 표시한 X재의 상대가격이 p_1 이라고 하면 이 국가는 A점에서 생산하고 D점에서 소비하게 된다. 이제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게 되면 생산가능곡선은 bb선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생산가능곡선은 Y재가 자본 집약재이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할 때 Y재쪽으로 편향되게 그려진다. Rybczynski 정리에 의해 국제가격이 일정할 때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자본의 증가율보다 자본 집약재인 Y재의 생산량의 증가율이 더 높게 그리고 노동집약재인 X재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균형점은 E점이 된다. E점이 지속적인 균형점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잉여노동이 생산에 투여하게 되면 생산가능곡선은 cc로 확장된다. 그것은 X재가 노동집약재이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X재 편향적으로 생산가능 곡선이 확장된다. 이 경우 노동의 생산성 증가를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공급의 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C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F점에서 소비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DI가 이루어지기 전인 생산점 A와 FDI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생산점 C를 비교하면 FDI는 고용증가를 통해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생산량증가는 소비점을 D점에서 F점으로 상승시키고 무역확대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Lewis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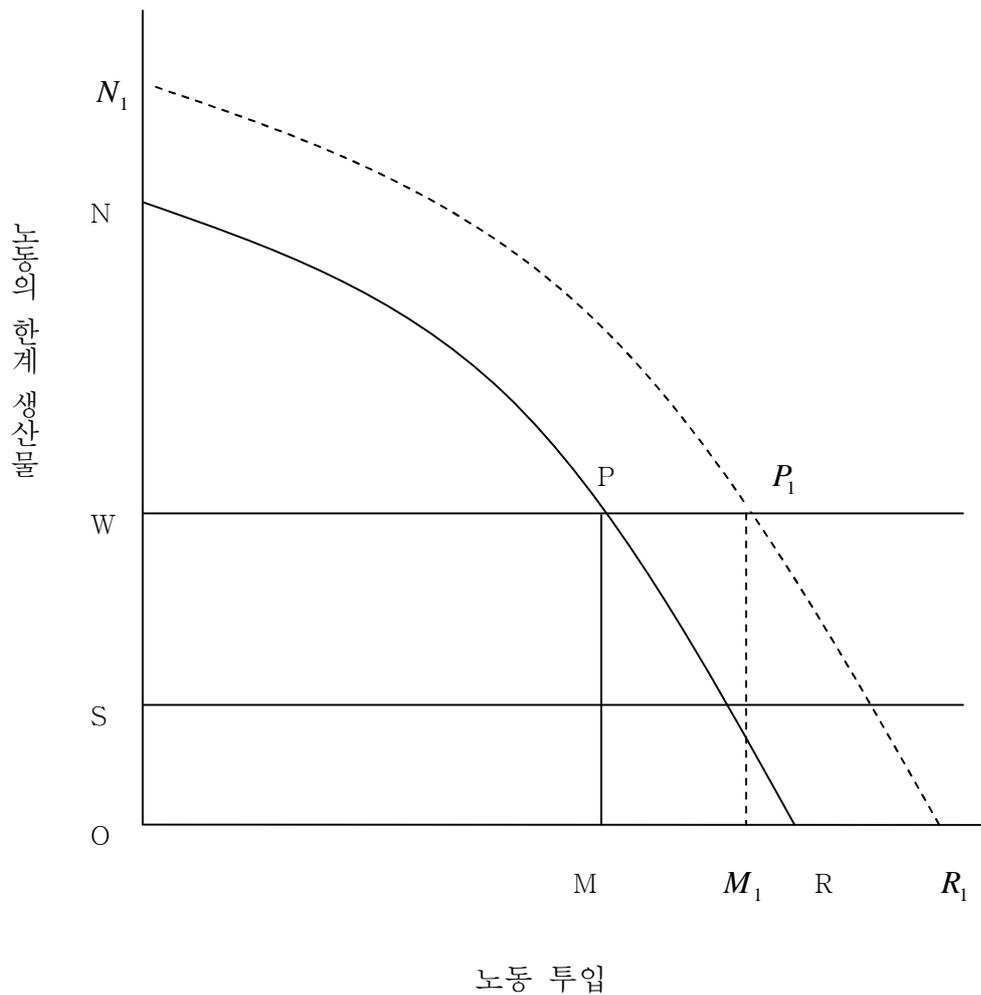
<그림 3.2> 노동의 한계 생산물, 농업 부문

Lewis 모델의 구별은 수출, 고용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잉여분출설과 별도로 고용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Lewis’모형이 있다. ‘Lewis’모델에는 농업 부문의 위장실업과 농업부문에서 제조업부문으로의 노동이동을 강조한다.

Lewis 모델은 생계 부문 (농업부문)에서 노동의 공급이 무한대라는 가정한다. 노동공급의 무한대란 노동공급곡선이 제조업 부문임금에서 무한 탄력적이다. 즉 수평선이다. 최저 한도의 생계 유지 임금에서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를 초과한다. 이부분에서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생계유지임금수준과 같거나 적게 된다. 그래서 생계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하여도 노동의 평균생산물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노동의 투입과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관계는 <그림 3.2>로 묘사된다. 일정한 토지량에서 노동고용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한계생산물이 증가하고 고용량이 OX 이 후에는 수확 체감의 법칙에 의하여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하락하기 시작한다. 생계유지임금이 S 이면 노동고용이 OX_1 일 때 한계생산물과 일치한다. 노동 고용이 OX_1 를 초과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생계유지임금이하로 하락하고, 노동고용이 OX_2 를 초과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가 된다. 즉 OX_2 를 넘어서 노동고용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은 감소할 것이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제로(0)일 때 생계부문에서 다른 산업부문으로 노동을 이동시켜도 농업부문의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는다.

<그림 3.3>로 제조업 부문의 노동 투입과 노동의 한계 생산물관계를 보여준다. 곡선 NR은 제조업 부문의 노동한계생산물, OW은 제조업부문임금, OS은 생계유지 임금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의 가설을 적용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물과 임금률이 동일한 P에서 노동이 고용된다. 노동을 OM만큼 고용했을 때 노동의 총 생산물 ONPM은 노동의 임금으로 OWPM, 자본가의 소득으로 WNP만큼 나뉘어 분배된다. 이러한 자본가 소득은 제조업부문의 자본축적의 원천이 되어 제조업에 재투자될 것이다



<그림 3.3> 노동의 한계 생산물, 산업 부문

투자가 제조업부문에 이루어져 노동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는 제조업부문의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크기에 달려있다.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림3.3>에서 보듯이 한계 생산물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이것이 곡선 N_1R_1 이다. 제조업부문임금(W)이 일정하면 제조업 부문은 생계 부문에서 노동을 MM_1 정도 흡수하여 노동을 더 고용할 것이다. 그러면 자본가의 소득은 WNP 에서 WN_1P_1 로 확대되며, 이것은 반복 재투자된다

‘Lewis’모델과 ‘잉여분출설’의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ewis’모델은 자급자족 경제와 산업 부문에서 완전고용이라는 가정했다. 둘째, 노동이 생계 부문에서 산업 부문으로 이동할 때 교통 정보통신부문에서 특별한 기술 진보 없이 그 수준이 일정하다. 셋째, 생계 부문에서 노동이 남아도는 이유는 최종 재에 대한 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관련 토지의 상대적인 부족때문이다. 넷째, 일단 자원 이동이 시작되었을 때 투자자원이 잉여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이 제조업부문에서 임금은 생계비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제조업부문 총수익에서 전체 노동자의 생계비수준의 임금의 제외하면 자본가의 이윤이 남게 된다. 이것을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잉여분출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잉여분출설에 의하면 자원이 잉여상태로 남는 것은 수요부족이라는 면이 강조된다⁸

⁸ Fu, Xiaolan (2004), “Export, FDI and Employment Growth in China”, *Expor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Palgrave Macmillan : New York, pp:76-96

제 2 절. 베트남에서 이론적 함의

<표3.1> 인구, 고용, 실업, 불완전 고용, 1996

(단위 : 백만 및 %)

	총계	도시		농촌 지역	
인구	75.35	15.23	20.2%	59.08	78.4%
노동인구 (15+)	48.46 (64.3%)	10.54	21.7%	37.92	78.3%
비경제활동 인구	12.59	3.7	29.4%	8.89	70.6%
경제활동 인구	35.87	6.84	19.1%	29.03	80.9%
실업	0.97	0.37	38.1%	0.59	60.8%
고용	34.90	6.46	18.5%	28.44	81.5%
농업	24.37	1.15	4.7%	23.22	95.3%
산업	3.68	1.74	47.3%	1.94	52.7%
용역	6.86	3.58	52.2%	3.28	47.8%
불완전 고 용 ^(a)	24%		17.8%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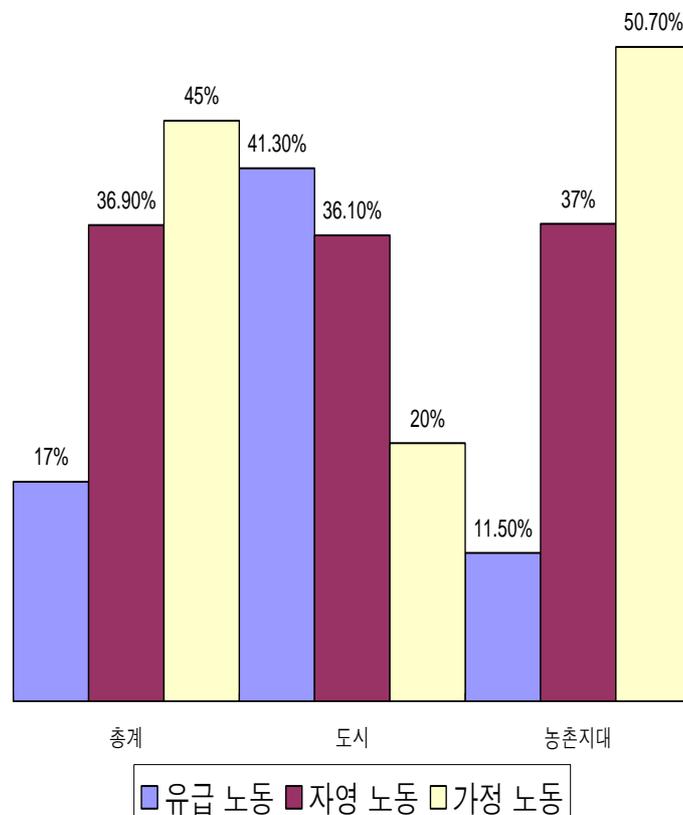
자료 : 베트남 노동 고용 현황, 1996.

제2장에서 보였듯이 1986년 베트남은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였다. 즉 사회주의

^(a) 불완전 고용은 총 고용의 퍼센트로서 여긴다

적 폐쇄경제에서 시장중의적 개방경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것은 대외무역의 확대와 해외직접투자(FDI)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면 베트남에 잉여노동^(*) 존재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잉여분출설과 Lewis 모델은 통해서 대외무역확대와 FDI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론할 수 있다. 먼저 베트남에는 잉여노동력이 존재하는가? <표3.1>은 1996년 기준 인구, 고용, 실업, 불안전공용에 관한 통계자료를 해석하고 있다

<표3.1>에 따르면 총 인구는 7,535만 명이고, 그 중 15세이상 인구는 4,846만 명으로 노동가능인구이며 전체인구의 64.3%를 차지한다. 여기서 가정 주부, 학생, 노인, 청소년등 비경제활동인구를 빼면 경제활동인구로 3,587백만 명이 된다. 이 중에 농촌지역의 노동 인구는 80.9%를 점유하며,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림3.4> 고용현황: 도시-농촌, 유급 노동⁹, 자영 노동¹⁰, 가정 노동¹¹, 1996년

도시 실업률은 2%인 농촌지대에 비해서 두 배이상을 차지했으며, 총 실업자는 1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 또는 자유화 개혁로 인해 정부와 국영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였다. 노동자 백만 명이상 개혁의 첫 3년에 감축되었다. 군인 75만 명 정도 제대했으며, 이민 20만명이 1990년대초에 소련에서 귀국했다. 이런 많은 실업발생 요인들이 실업률 잡히지 않고 고용 노동형태로 계산되었다. 이 <표3.1>에 의하면 불완전고용형태가 가장 잉여 노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불완전고용을 도시-농촌으로 세분화하여 보면 그 특징을 <그림3.4>이 잘 보여주고 있다. 고용형태가 유급노동, 자영노동, 가정노동 세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데 가장 잉여노동이 높은 고용형태는 가정노동, 그 다음 자영노동이며 유급노동의 경우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잉여노동은 존재할 수 없다. 가정노동의 경우 일부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족성원 전체가 일을 함으로써 실제로 노동의 한계생산 노동이 존재하게 된다

<그림3.4>에서 보듯이 도시지역의 가정노동은 20%, 자영노동은 36.1%, 유급노동은 41.3%이다. 이에 비해 농촌지역은 가정노동은 50.7%, 자영노동은 37%, 유급노동은 11.3%로 도시지역과 대비된다. 즉 도시지역은 유급노동형태가, 농촌지역은 가정노동형태가 지배적임을 알수 있는데 농촌지역이 훨씬 더 잉여노동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보듯이 베트남에서 잉여노동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을 때 FDI가 제조업에 대부분 투자되므로 Lewis 모델에 의해 제조업부문의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여 농업부문의 잉여노동이 제조업부문으로 이동하게 되어 고용의 증가가 이루어진다. 또 한편 대외무역 확대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⁹ Paid Employees

¹⁰ Self-employed alone workers

¹¹ Family workers

이것은 결제하기 위해 수출이 증가해야 한다. 이런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잉여노동이 분출하여 생산능력의 증가를 가져온다.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장 실증연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용이 증가하는 2가지 방법은 대외무역확대와 FDI에 의한 것이다. 첫째, FDI의 증가는 농업부문의 잉여노동을 제조업으로 이동시켜 고용을 증가시킨다. 둘째, 대외무역의 확대는 수출증가는 통해 잉여노동의 활용을 통해 잉여 생산능력을 분출시킨다. 제4장은 이러한 경제적 함의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제 1 절 추정 모형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하기 위해 생산함수를 식(4.1)과 같은 “Cobb-Douglas” 형태로 가정한다

$$Q_t = A^\gamma K_t^\alpha N_t^\beta \quad (4.1)$$

t 는 시간, Q 는 실질 생산량, N 는 노동 투입, K 는 자본이다. α 와 β 는 총소득에서 자본의 분배몫과 노동의 분배몫을 나타내는 파라메타이며, γ 는 생산과정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임금 (w)과 같고, 자본의 한계 생산물은 자본의 가격(c)¹² 과 같아야 한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¹² $W = A^\gamma K_t^\alpha \beta N_t^{\beta-1} = \frac{\beta Q}{N_t}$ ①; $C = A^\gamma \alpha K_t^{\alpha-1} N_t^\beta = \frac{\alpha Q}{K}$ ②; $K_t = \frac{\alpha}{\beta} N_t \frac{W}{C}$ ③

①식을 ②식으로 나누어 K 에 대해서 풀면 이 ③식을 (4.1)에 대입하면 (4.2)식이 구해진다

$$Q_t = A^\gamma \left(\frac{\alpha N_t}{\beta} * \frac{W}{C} \right)^\alpha N_t^\beta \quad (4.2)$$

(4.2)식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이것을 $\ln N_t$ 에 대해서 풀면 (4.3)식과 같은 기본 노동 수요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ln N_t = \phi_0 + \phi_1 \ln(w/c) + \phi_2 \ln Q_t + \varepsilon_t \quad (4.3)$$

$$\text{여기서} \quad \phi_0 = -(\gamma \ln A + \alpha \ln \alpha - \alpha \ln \beta) / (\alpha + \beta)$$

$$\phi_1 = -\alpha / (\alpha + \beta)$$

$$\phi_2 = 1 / (\alpha + \beta)$$

ε_{it} 는 오차항 (disturbance term)이다

이 식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임금(w/c)과 총생산량(Q_t)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상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총생산량이 증가하면 고용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ϕ_1 의 부호는 음, ϕ_2 의 부호는 양이 예측된다

여기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3)식을 변형한다. 앞서 지적 하듯이 수출은 잉여분출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같은 수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총생산량을 수출량과 극대소비용 생산량 (DQ)로 나눈다. 그러면 (4.3)식은 (4.4)식처럼 변형된다

$$\ln N_t = \phi_0 + \phi_1 \ln(w/c) + \phi_2 \ln DQ_t + \phi_3 \ln X_t + \mu_0 T + \varepsilon_t \quad (4.4)$$

수출이 확대될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학습효과나 지식과 정보획득 등으로 기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기술변화부문을 나타내는 A_t 를 식(4.5)와 같이 가정한다

$$A_t = e^{\delta_0 T} X S_t^{\delta_1} \quad \delta_0, \delta_1 > 0 \quad (4.5)$$

T 는 시간 추세이며, $X S$ 는 수출이 기술변화에 미치는 변수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수출-생산량 비율로 추정한다. 수출이 기술진보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때 노동수요 방정식은 식(4.6)과 같다

$$\ln N_t = \phi_0 + \phi_1 \ln(w/c) + \phi_2 \ln Q_t + \mu_1 \ln X S_t + \mu_0 T + \varepsilon_t \quad (4.6)$$

$$\phi_0 = -(\alpha \ln \alpha - \alpha \ln \beta) / (\alpha + \beta)$$

$$\phi_1 = -\alpha / (\alpha + \beta)$$

$$\phi_2 = 1 / (\alpha + \beta)$$

$$\mu_1 = -\gamma \delta_1 / (\alpha + \beta)$$

$$\mu_0 = \gamma \delta_0 / (\alpha + \beta)$$

수출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X S$ 의 계수의 부호는 마이너스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고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만약 플러스 부호를 갖게 되면 수출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시장에서 동태적인 고용 조정 과정은 알아보기 위해 각변수의 시차변수를 추정함수에 포함한다. 각 다른 독립변수들에 분배시차구조를 수출이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와 고려한 경우에 각각 포함시켜 추정모형을 정리하면 식(4.7)과 식(4.8)이 된다.

1) 수출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begin{aligned} \ln N_t = & \phi_0 + \sum_j \phi_{1j} \ln w_{t-j} + \sum_j \phi_{2j} \ln DQ_{t-j} + \sum_j \phi_{3j} \ln X_{t-j} \\ & + \sum_j \phi_{4j} \ln N_{t-j} + \mu_0 T + \varepsilon_t \end{aligned} \quad (4.7)$$

2) 수출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경우

$$\begin{aligned} \ln N_t = & \phi_0 + \sum_j \phi_{1j} \ln w_{t-j} + \sum_j \phi_{2j} \ln Q_{t-j} + \sum_j \phi_j \ln XS_{t-j} \\ & + \sum_j \phi_{4j} \ln N_{t-j} + \mu_0 T + \varepsilon_t \end{aligned} \quad (4.8)$$

이 두 추정모형을 통해서 베트남이 대외무역확대와 FDI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분석한다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1. 추정결과

<표 4.1>

FDI의 경제성장과 수출과의 상관관계

종속변수 \ 독립변수	ΔGR	ΔX
상수	5.166*** (0.000)	14.243 (0.039)
ΔFDI	0.476*** (0.001)	0.364 (0.138)
R^2	0.71	0.364

주: *:10%, **:5%, ***:1% 유의수준. ()는 가치 : P_value

표<4.1>는 FDI가 경제성장과 수출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의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과 수출 계수의 부호는 플러스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FDI 유입이 경제성장과 수출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DI의 경제성장과 상관관계는 0.1%유의수준으로 FDI가 1% 증가가 경제성장은 0.496%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DI가 수출과의 상관관계는 양으로 나타나지만 유의수준이 14%정도 되므로 통계적으로 신뢰할만하지 않다.

<표4.2> 임금, 노동생산성, 수출 등 노동고용에 미친 영향

종속변수 ΔLN_t			
	(1)	(2)	(3)
ΔLW_t	-0.231*** (0.000)	-0.235*** (0.000)	-0.228*** (0.000)
ΔLW_{t-1}	0.021* (0.072)	0.019 (0.123)	0.017* (0.093)
ΔLQ_t	0.113*** (0.000)		0.217** (0.041)
ΔLQ_{t-1}	-0.083** (0.042)		-0.135 (0.143)
ΔLDQ_t		0.173* (0.063)	
ΔLDQ_{t-1}		-0.114 (0.125)	
ΔLX_t		-0.078*** (0.001)	
ΔLXS_t			-0.038*** (0.000)
ΔLN_{t-1}	-0.023* (0.062)	-0.029* (0.093)	
Adj	0.723	0.742	0.783

주: *:10%, **:5%, ***:1% 유의수준. ()는: P_value

<표4.2>에서 (1)은 기본식 (4.4), (2)는 식(4.7), (3)은 식(4.8)의 추정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여기서 변수간 자기 상관관계를 줄이기 위해 각 변수의 차분(differences)를 사용했으며 또한 현재 시계열 자료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변수에 시차변수를 사용하였다

기본식에서처럼 수출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 이론이 예측하는 대로 상대임금의 계수의 부호는 음, 총 생산량의 계수의 부호는 양으로 추정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이 1%이내 신뢰할만하다. 임금이 1% 증가하면 고용은 0.231% 감소하고 총 생산량이 1% 증가하면 고용은 0.113% 증가했다.

추정식(4.7)에서, 수출은 고용에 음의 영향 미치고 있는 것이 유의수준 1% 수준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수출이 1% 증가하면 고용은 0.0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수요가 증가하면 고용이 0.1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유의수준 10%이내로 의미가 있다

수출에 의한 기술변화를 고려한 추정식(4.8)식의 추정결과를 보면 수출과 GDP 비율로 나타낸 수출침투지수 (export penetration index)의 추정치가 1%이내 유의수준에서 고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베트남이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흡수나 학습효과를 통해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고용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GDP 증가하면 고용은 0.217% 증가하고 있다. 동태적 고용조정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추정식 (4.7),(4.8)식의 추정결과는 수출변수와 수출침투지수가 동태적으로 고용에 음의 영향, 국내수요와 GDP는 고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결과는 모두 5%이내의 유의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첫째, FDI는 경제성장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수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수출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GDP 증가는 고용에 양의 방향으로 상대임금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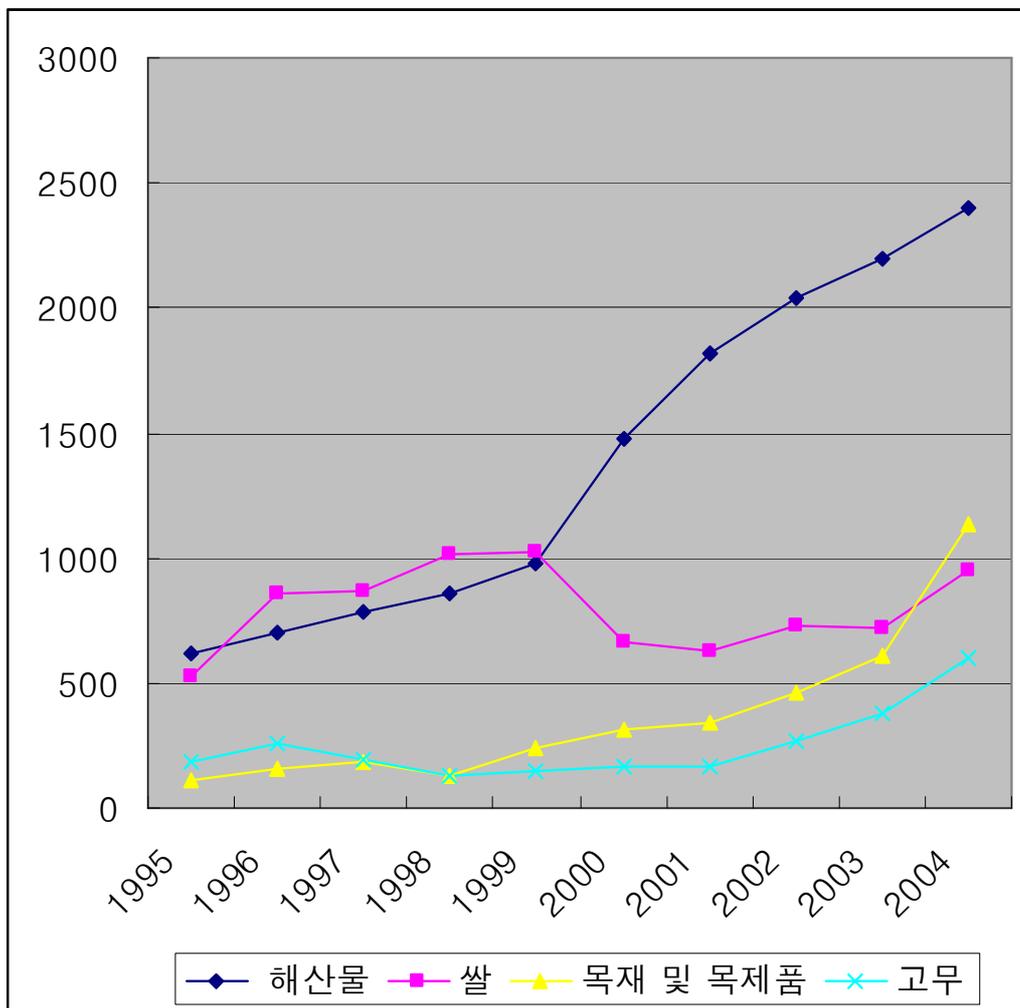
셋째, 수출을 고려한 경우, 수출은 지속적으로 고용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국내 수요와 GDP 증가는 고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수출에 의한 기술흡수와 학습효과로 지속적으로 고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해석

<그림 5.1>

베트남 주요 수출품 (1995-2004)



자료: 아시아 개발 은행 (ADB), [http:// www.adb.org/statistics](http://www.adb.org/statistics)

앞의 추정결과를 보면 베트남경제는 “도이머이”정책이후 수출증가 빠른 경제성장

과 고용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출증가는 이루어졌지만 수출은 고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FDI는 수출 증가와는 관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화대에 따른 잉여분출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의 수출내용을 알아보면 <그림 5.1> 보듯이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생산품은 해산물이며 그 다음 쌀, 목재, 고무이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농수산물 중심의 1차상품이며 제조업상품은 극히 일부분이다. 또한 개혁개방이후 빠른 속도로 1차상품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사실과 앞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이 대외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려는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것은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차 상품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다. 즉 1차 산업에 생산과 수출이 증가했으나 고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꾸준한 수출증가에 따라 1차 산업쪽에서 농업 기술이 흡수되고 학습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수요 증가와 GDP 증가가 고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FDI가 제조업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제조업생산의 증가했는데 이것은 농업부문 잉여노동을 제조업에서 흡수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제조업상품은 수출되지 않고 대부분 국내수요에 충당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개혁개방이후 베트남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주요수출산업인 농수산부문에서는 고용이 감소하고 국내제조업부문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데 전체적으로 제조업부문의 고용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경제의 현시점에서 Mynt의 잉여분출에 의한 고용효과보다는 Lewis 모형에서 농업부문의 잉여노동이 제조업 부문으로 전환되는 고용효과가 더 실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5 장 결론

1986 년 개혁개방이후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 수출증가, 고용증가 등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서는 잉여노동이 존재할 경우, 무역확대가 고용증가를 가져온다는 잉여분출설과 제조업부문의 투자확대가 고용증가를 가져온다는 ‘Lewis 모델’를 바탕으로 한다. 베트남의 경우 개도국으로 잉여노동이 농촌부문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개혁개방정책으로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두 경제적 이론의 전제조건과 부합되기 때문에 이 이론의 경제적 함의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베트남은 해외직접투자가 농업부문의 잉여노동은 제조업부문으로 흡수하여 고용증가와 경제성장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만 수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부문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제조업 상품이 수출보다는 국내수요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출증가가 오히려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수출을 통한 기술흡수와 학습효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방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베트남은 경제발전을 위해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농수산물 등 1차 산품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수출증가로 농업부문의 기술흡수와 학습효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ynt의 잉여분출설과 Lewis 모델을 베트남 경제에 적용하여 고용증가를 설명한 결과 현시점에서 Mynt의 잉여분출에 의한 고용효과보다는 ‘Lewis 모형’에서처럼 제조업부문의 투자확대가 더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것은 베트남 경제성장과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고용변화문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Fu, Xiaolan (2004), “Export, FDI and Employment Growth in China”, *Expor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Palgrave Macmillan : New York, pp:76-96
2. Myint, Hla (1958), “ The Classical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Journal*, LXVIII, june pp: 317-37
3. Myint, Hla (1958), “Adam Smiths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Perspective of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Journal*, august, pp: 231-248
4. Jamal, Vali, (1998), “Agrarian Transition in Vietnam”, International Labour Office, <http://www.ilo.org>
5. Nguyen, Xuan Nguyen, (2002), “International Migration of Highly Skilled Workers in Vietnam”, *OECD Report*
6. Loi, Cu Chi, (2001), “Migration And The Labour Market in Asia : Recent Trends and Policies”, *OECD Report*

인터넷 사이트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http://www.imf.org>
2. Asia Development Bank (ADB), <http://www.adb.org/statistics>
3. General Statistics Office (GSO), <http://www.gso.gov.vn>
4.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http://www.stats.unctad.org/fdi>
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http://www.mofa.gov.vn>
6. Vietnam Trade Information, <http://www.info.vn/>